

# 사무엘서

제 3 강

다윗 왕

역자: 이창배 (Ph.D., UCLA)

후원: 김경신 (NT Professor)



thirdmill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 2019 by Third Millennium Ministries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for profit, except in brief quotations for the purposes of review, comment, or scholarship,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Inc., 316 Live Oaks Blvd., Casselberry, Florida 32707.

Unless otherwise indicated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from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ESV®), copyright ©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Used by permission. All rights reserved.

#### **ABOUT THIRDMILL**

Founded in 1997, Thirdmill is a non-profit Evangelical Christian ministry dedicated to providing:

#### **Biblical Education. For the World. For Free.**

Our goal is to offer free Christian education to hundreds of thousands of pastors and Christian leaders around the world who lack sufficient training for ministry. We are meeting this goal by producing and globally distributing an unparalleled multimedia seminary curriculum in English, Arabic, Mandarin, Russian, and Spanish. Our curriculum is also being translated into more than a dozen other languages through our partner ministries. The curriculum consists of graphic-driven videos, printed instruction, and internet resources. It is designed to be used by schools, groups, and individuals, both online and in learning communities.

Over the years, we have developed a highly cost-effective method of producing award-winning multimedia lessons of the finest content and quality. Our writers and editors are theologically-trained educators, our translators are theologically-astute native speakers of their target languages, and our lessons contain the insights of hundreds of respected seminary professors and pastors from around the world. In addition, our graphic designers, illustrators, and producers adhere to the highest production standards using state-of-the-art equipment and techniques.

In order to accomplish our distribution goals, Thirdmill has forged strategic partnerships with churches, seminaries, Bible schools, missionaries, Christian broadcasters and satellite television providers, and other organizations. These relationships have already resulted in the distribution of countless video lessons to indigenous leaders, pastors, and seminary students. Our websites also serve as avenues of distribution and provide additional materials to supplement our lessons, including materials on how to start your own learning community.

Thirdmill is recognized by the IRS as a 501(c)(3) corporation. We depend on the generous, tax-deductible contributions of churches, foundations, businesses, and individuals. For more information about our ministry, and to learn how you can get involved, please visit [www.thirdmill.org](http://www.thirdmill.org).

#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 제 3 강 다윗 왕(King David)

### 목차(Contents)

<b>I. 서론(Introduction)</b> .....	<b>1</b>
<b>II. 초기의 복들(Earlier Blessings)</b> .....	<b>3</b>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4
1. 헤브론에서(In Hebron)	5
2. 예루살렘에서(In Jerusalem)	9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20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20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22
<b>III. 후기의 저주들(Later Curses)</b> .....	<b>25</b>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25
1. 초기의 문제들(Initial Troubles)	27
2. 확장된 문제들(Extended Troubles)	34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39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39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41
<b>IV. 지속적인 은택(Ongoing Benefits)</b> .....	<b>42</b>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43
1. 왕조 노래(Dynastic Song)	47
2. 왕조 유언(Dynastic Last Words)	48
3. 승리한 용사들(Victorious Warriors)	50
4. 승리한 용사들(Victorious Warriors)	51
5.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Relief from God's Curse)	52

6.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Relief from God's Curse)	54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56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56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58

<b>V. 결론(Conclusion)</b> .....	<b>59</b>
--------------------------------	-----------

# 사무엘서(The Book of Samuel)

## 제 3 강 다윗 왕(King David)

### I. 서론(INTRODUCTION)

한때 나이든 남자분이 교회 지도자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그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왕이시기 때문입니다."<sup>1</sup> 우리 모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의 뜻을 이해한다. 우리가 아무리 지도자들이 완벽하기를 바랄지라도, 그들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 그러나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래에 대한 모든 소망을 그리스도께 둘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완벽한 왕이시기 때문이다.

여러 면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고대 이스라엘의 원래 독자들에게 비슷한 관점을 제시했다. 그와 그의 원래 독자들은 하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땅 끝까지 확장할 다윗의 의로운 아들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다윗의 집의 실패로 인해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의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신실한 자들에게 다윗의 이 위대한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 썼다.

---

<sup>1</sup> **Dr. Thaddeus J. James, Jr. (Host)** is Vice President of Academic Affairs at 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He holds an M.A. in Pastoral Leadership from BTS and a Ph.D. in Theology from Trinity Theological Seminary. In addition to teaching seminary students and supervising faculty, Dr. James serves as Director of the BTS Prison Initiative at Bibb County Correctional Facility, a program that offers Certificates in Practical Theology and/or M.A. degrees in Biblical Studies. He is Associate Minister and a Ruling Elder at Household of Faith Church (PCA) in Birmingham, and served as chair of the Association of Reformed Theological Seminaries (ARTS) Commission on Accreditation. Dr. James and his wife Yvonne are the parents of six children, ten grandchildren, and have been licensed therapeutic foster parents for more than 19 years.

사무엘서에서 다윗의 통치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비슷한 방식으로 재확인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 대한 충실한 봉사에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완벽하게 의로우신 왕이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이 강의는 사무엘서 강좌의 세 번째 강의이고 제목은 "다윗 왕"이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주요 부분, 곧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는 장들에 집중할 것이다. 우리가 곧 살펴볼 것이지만, 사무엘서의 이 부분은 고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솔직하면서도 희망적인 다윗의 모습을 제공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다윗의 위대한 아들 예수님을 섬길 때 우리를 격려해준다.

이 강좌 전반에 걸쳐,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분열 왕국 혹은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의 책을 썼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그가 그들의 삶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을 주려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의 중대한 원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는 것은 도움이 된다.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도록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왕정으로의 전환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 설명하였다.

이 요약이 지적하듯이, 사무엘서 저자는 이스라엘이 왕정으로 전환한 것이 어떻게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절정에 이르렀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의 시대 이전에 일어났던 어떤 역사적 사건들에 관하여 썼다. 그는 또한 이스라엘의 원래 독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두라고 촉구하도록 그의 역사적 기록을 디자인했다.

이전 강의들에서 우리는 사무엘서가 이 주제들을 세 가지 주요 부분에서 다루는 것을 보았다. 첫 번째 부분은 사무엘의 왕정 도입(삼상 1-7 장)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은 사울 왕정의 실패(삼상 8-삼하 1 장)를 다루고, 세 번째 부분은 다윗 왕정의 지속(삼하 2-24 장)을 다룬다. 이번 강의에서 우리는 책의 세 번째 부분에 집중할 것이다.

다윗 왕정의 지속에 대한 기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삼하 2-9 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초기의 복들을 다루고, 두 번째 부분(삼하 10-20 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신 후기의 저주들을 다루고, 세 번째 부분(삼하 21-24 장)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집을 통해 제공되는 지속적인 은택을 다룬다.

다윗 왕에 대한 이번 강의는 이 세 부분을 탐구하며 다윗 왕정의 지속에 관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사무엘하 2-9 장을 통해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초기의 복들을 살펴보자.

## II. 초기의 복들(EARLIER BLESSINGS)

이 강좌 전반에 걸쳐, 우리는 다윗의 통치에 대한 저자의 관점이 책의 목적에 매우 중요함을 보았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에서 사사들의 통치에서 왕들의 통치로 전환된 것은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마침내 완료되었다. 이스라엘이 영원한 다윗 왕조의 통치 아래 연합하여 본격적인 왕국이 된 것은 바로 다윗이 통치할 때 이루어진 일이었다. 다윗 통치의 이 절정적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자는 다윗 통치의 초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전례 없는 복을 쏟아 부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으로 사무엘하를 시작했다.

우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윗 초기의 복들을 다룬 장들(삼하 2-9 장)을 살펴볼 것이다. 우선, 우리는 이 장들의 구조와 내용에 비추어 원래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기독교인의 적용, 곧 사무엘서의 이 부분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초기의 복들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이 장들은 많은 사건들을 다루지만, 책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들도 반복적으로 두 가지 주요 주제에 관심을 기울인다. 첫째로, 저자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 나라가 다윗의 통치 아래서 어떻게 발전했는지 보여주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통합하고, 예루살렘을 새로운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고, 그곳에 그의 궁전을 지었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둘째로, 사무엘서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의 관점에서 이 장들에 나오는 다윗의 성공을 설명했다. 저자는 다윗이 성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택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다윗이 인간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사항을 일관되게 이행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장들에서 다윗은 특히 예배와 왕권의 행사에 관한 모세 율법의 표준에 충실했다.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한 덕분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았다. 전반적으로, 저자가 원래의 독자들에게 주려는 교훈은 아주 명확하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교훈은 하나님의 복에 대한 모든 소망이 다윗의 충성, 대대로 내려오는 그의 자손들의 충성,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실 다윗의 완벽하게 의로운 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다.

(아코지예람[Humphrey Akogyeram] 박사)<sup>2</sup> 사무엘서에서 우리가 보는 다윗의 복은 그의 왕조의 다음 왕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

<sup>2</sup> Rev. Dr. Humphrey Akogyeram is a professor at Good News Theological Seminary in Accra, Ghana.

순종함으로써 우리가 말하는 소위 "신명기적 원리"를 실제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순종은 복을 가져오고, 불순종은 저주를 가져온다는 원리이다. 왕이 되기 전이나 이스라엘 왕이 된 이 시기에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었다. ... 하나님께 이러한 순종을 하면서 다윗은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예언자로부터 받은 지시를 참으로 매우 세심하게 따랐다.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할 때, 다윗은 그냥 일어나서 가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그가 싸우러 가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등을 말씀해 주시도록 항상 하나님께 여쭙어 보았다. 그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응답을 들으면 싸우러 갔고, "가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가지 않고 머물렀다. 나는 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에 초점을 맞춘 다윗의 왕권 스타일이 그를 계승한 왕들에게 매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윗의 초기 복들에 관한 기록은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에 있는 거처를 떠나 유다 땅에 살려고 오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것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 부분(삼하 2:1-5:5)은 다윗이 헤브론에서 겪은 경험을 전하고, 둘째 부분(삼하 5:6-9:13)은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겪은 경험을 전한다.

### 1. 헤브론에서(삼하 2:1-5:5 In Hebron)

저자는 헤브론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했다. 첫째로, 그는 삼하 2:1-4:12 에서 다윗의 왕권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는 것으로 시작했다.

#### a) 증대되는 지지(삼하 2:1-4:12 Growing Support)

다윗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나뉜다. 각 에피소드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은 그의 왕권에 대한 지지를 높여주는 하나님의 복을 가져왔다.

첫 번째 에피소드(삼하 2:1-4)는 유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서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 여호와께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즉시 시글락의 안위를 버리고 유다로 감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집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우도록 하심으로써 그에게 복을 주셨다.

두 번째 에피소드(삼하 2:5-7)에서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지지를 받았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잠재적인 적으로 대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사울에게 매우 헌신하여 목숨을 걸고 사울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예로운 장례를 치러 주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왕의 "마음이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라(신 17:20)"고 명하신 하나님의 언약 조건을 충족시켰다.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잘 대해 주겠다고 맹세했다. 그는 그들을 격려하며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삼하 2:7)."고 말했다. 그 결과, 사울에게 충성을 다한 한 그룹의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많은 지지를 얻는 복을 베푸셨다.

유다 사람들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관해 전한 후, 저자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지지가 증대되는 것을 강조하는 세 번째 에피소드를 전했다. 앞선 두 에피소드들보다 훨씬 더 긴 이 에피소드(삼하 2:8-4:12)는 사울의 장군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끄는 반란으로 시작된다. 이스보셋의 실제 이름은 "주님의 사람"이란 뜻의 이스바알이지만, 저자는 그의 본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를 "수치의 사람"이란 뜻의 이스보셋이라고 불렀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다윗과 오랜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삼하 3:1 은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고 말한다.

저자는 먼저 헤브론에서 여러 아들들이 다윗에게 태어났다는 사실에 주목함으로써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복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다음 사울의 집이 어떻게 점점 약해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저자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이 서로 등을 돌렸다고 전했다. 구약의 많은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자주 그분의 총애하는 백성을 도우려고 하실 때 원수들이 서로 싸우도록 하셨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사울의 첩과 통간하였다고 거짓 비난함으로써<sup>3</sup> 아브넬과 갈등을 빚기 시작했다. 이에 아브넬은 다윗에게 귀순했고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다윗의 왕권을 지지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격려했다. 삼하 3:18 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엄청난 복을 본다. 이 구절에서 아브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고 선언하셨던 것을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상기시켰다.

사울의 집이 점점 더 약해지는 동안 다윗이 어떻게 점점 더 강성해졌는지를 더욱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아브넬과 이스보셋의 죽음을 상세히 기술했다. 그는 두 경우 모두 다윗에게 어떤 잘못도 없으며 그가 결백했음을 지적했다. 첫째로, 그는 다윗의 장군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했다고

---

<sup>3</sup> 역자 주: 아브넬이 사울의 첩 리스바(삼하 3:7; 21:10-14)와 통간하였다는 이스보셋의 주장이 사실인지 아닌지 의견이 나뉜다. 아브넬의 결백을 주장하는 두 학자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1. Bergen, *1, 2 Samuel*, 308: ... But Abner considered himself to be “loyal to the house” of Saul as well as “to his family and friends.” If in fact Abner was telling the truth, then Ish-Bosheth’s apparently unfounded accusation suggests that he possessed the same tendency to misperceive reality that his father had. Like Saul, Ish-Bosheth falsely accused his most loyal and capable soldier of treason. ... n. 17. This interpretation disagrees with Brueggemann (*First and Second Samuel*, 225), who understands Abner to have indeed raped Rizpah.

2. Firth, *1 & 2 Samuel*, 347: Abner’s guilt in this is not confirmed (against Brueggemann 1990b: 226, who assumes his guilt; Anderson 1989: 56 suspects his innocence), though Rizpah’s later loyalty towards Saul suggests she would not have been a willing party (Scholz 2004 interprets it as rape). However, Abner’s guilt is left unresolved because what matters is not his guilt but his response to Ish-bosheth’s accusation and need to restrain Abner’s power.

전했다. 그리고 다윗의 의를 보여주기 위해, 저자는 즉시 삼하 3:26 에서 “다윗은 그것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그것을 알게 된 후, 다윗은 삼하 3:28 에서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다.”라고 선언했다. 사실, 삼하 3:31 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에게 아브넬을 위해 애도하라고 명령하기도 했다. 그 결과, 삼하 3:37 에 의하면,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게 되었다.”

둘째로, 다윗은 또한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도 결백했다. 저자는 두 사람[=레갑과 바아나]이 침상에서 낮잠을 자던 이스보셋을 죽이고 그들의 행동을 자랑스럽게 다윗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보셋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그 살인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했다. 다시 한 번, 저자의 강조는 분명하다. 이 때 다윗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사울의 고위 지지자들과 가족들로부터도 점점 더 많은 지지를 받도록 복을 주셨다.

#### *b) 전폭적인 지지(삼하 5:1-5 Full Support)*

이것은 우리를 헤브론에서 다윗이 받은 복의 두 번째 부분, 곧 온 이스라엘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을 전하는 삼하 5:1-5 로 인도한다. 이 구절들에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대표자들은 헤브론에 모여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그들의 왕으로 삼았다. 다시 한 번 다윗은 백성에게 신실할 것을 겸허히 맹세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을 나타냈다. 삼하 5:3 에 기록된 대로 “다윗은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는 복을 베푸셨다.

헤브론에서 받은 다윗의 초기 복들을 기록한 후, 저자는 삼하 5:6-9:13 에서 예루살렘에서 받은 다윗의 복들을 이야기했다. 이 다소 긴 이야기는 내러티브, 보고, 연설, 기도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들은 모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때 어떻게 점점 더 큰 복을 받았는지를 보여준다.

## 2. 예루살렘에서(삼하 5:6-9:13 In Jerusalem)

성경에 익숙한 모든 사람은 예루살렘이 모든 성경 역사의 지리적 중심지라는 것을 알고 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계획은 지상의 그분의 나라가 예루살렘 근처에서 시작하여 땅 끝까지 확장되는 것이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집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소망을 성취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므로 그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를 강조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 a) 초기 업적(삼하 5:6-6:23 Initial Accomplishments)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세 가지 에피소드로 나뉜다. 첫 번째 에피소드(삼하 5:6-6:23)는 다윗의 초기 업적을 다룬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초기 업적을 세 단계로 보고했다. 첫 번째 단계(삼하 5:6-16)에서 다윗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의 요새를 두려움없이 정복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나타냈다. 이것은 단순한 인간 싸움이 아니었다. 하나님 자신이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승리하도록 하셨다. 저자가 삼하 5:10 에서 설명했듯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갔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하늘 군대의 수장으로 지칭하는 하나님의 칭호였다. 그래서 사무엘서 저자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고 말했을 때,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 그와 함께 그리고 그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과 천군 천사의 복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했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더 많은 복에 대한 두 가지 짧은 보고를 추가함으로써 예루살렘에서 다윗이 거둔 승리가 하나님의 복임을 확인시켜주었다. 첫 번째 보고에서 그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건축 사업에 대해 언급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요새화했고, 두로 왕 히람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다윗을 위해 궁전을 지을 목수와 석수도 보냈다. 두 번째 보고에서 저자는 삼하 5:13 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더 많은 자녀를 갖도록 복을 주셨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단순히 다윗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은 온 나라의 유익을 위한 것이었다. 삼하 5:12 은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고 말하고 있다.

다윗의 초기 업적의 두 번째 단계(삼하 5:17-25)에서 사무엘의 저자는 계속해서 다윗이 예루살렘 방어에 성공한 것을 설명했다. 블레셋 사람들이 두 번 예루살렘을 위협했지만, 두 번의 전투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헌신했다. 삼하 5:19, 23 에 의하면, 그는 행동하기 전에 “여호와께 여쭙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즉시 순종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큰 승리를 거두는 복을 베푸셨다. 첫 번째 전투가 끝난 후,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사람들의 우상을 취했다. 이것은 마치 엘리 시대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취한 것과 비슷하다. 두 번째 전투가 끝난 후,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멀리 북쪽과 동쪽으로 몰아낼 수 있었다.

다윗의 초기 업적의 세 번째 단계(삼하 6:1-23)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확보하는 데 어떻게 성공했는지 설명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져오는 유명한 이야기를 듣는다. 이전 강의를 통해 여러분은 언약궤가 20 년 동안 기랴여아림(= 바알레유다)에<sup>4</sup>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이때 다윗은 언약궤를

---

<sup>4</sup> 기랴여아림은 바알레유다(삼하 6:2), 바알라(수 15:9; 대상 13:6), 기랴바알(수 15:60; 18:14) 등으로 불리기도 했다. Youngblood(“1, 2 Samuel” in *REBC* 3, 375)는 바알레유다에 대한 히브리어 이름 **הַיְהוָה בְּעֵלֵי** [바알레 여후다]는 요드의 중복오사(dittography)로 인한 것이므로 **הַיְהוָה בְּעַל** [바알 유다]로 읽는 것이 더 좋은 독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바알 유다]가 기랴바알, 기랴여아림의 다른 표현 방식일 것으로 보았다.

수도로 가져오기 위해 성대한 행렬을 조직함으로써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였다.

다윗의 행렬의 시작은 즉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예배가 예루살렘의 안보에 결정적이라는 다윗의 인식을 가리킨다. 다윗의 행렬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참여하는 예배 행위였다. 이와 더불어 삼하 6:1 에서 읽는 대로 다윗은 대규모 정예 군사들도 모았다. 삼하 6:2 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군사적 목표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칭호는 하나님을 하늘 군대의 수장으로 추앙하는 것이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수도를 이스라엘 예배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이해했다.

행렬이 전진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은 지진이 발생했다. 레위 사람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쳐서 죽이셨다. 우리가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에 대한 모세의 율법을 무시했다는 것을 알 때까지는 하나님의 반응이 극단적으로 보일 수 있다. 삼하 6:3 에 따르면,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실었다.” 이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수십 년 전에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려보냈을 때 했던 방식과 아주 흡사했다. 레위인들은 모세가 출 25:12-14 과 민 7: 9 에서 명한 대로 “궤의 양쪽 고리에 채를 꿰어서 궤를 메고” 옮기지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웃사가 이 거룩한 행렬에서 하나님의 궤를 손으로 만졌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민 4:15).”고 명백히 선고하신 대로 죽음의 형벌을 받고 말았다.

이 비극에 대하여 해석자들이 너무나 자주 다윗을 비난하는 경향이 있지만, 사무엘서 저자는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은 이 부분에서 저자가 이 기간 동안 다윗의 충성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축복하셨는지 일관되게 강조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가 이

장면에서 다윗의 불충성을 부각시키려고 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그는 레위 사람들에게 책임의 무게를 두었다. 삼상 6:19 에서 알 수 있듯이, 일찍이 벤세메스에서 레위 사람들은 모세의 율법대로 언약궤를 다루지 않았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의 법을 무시했다. 아마도 다윗은 3 만 명이 넘는 이 대규모 행렬을 인도할 때 레위 사람들이 했던 일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삼하 6:8 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웃사에게 임했을 때 “다윗은 화가 났다.”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도 레위 사람들에게 화가 났을 것이다. 삼하 6:9 에 의하면, “다윗은 그 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경외했다.” 그는 언약궤를 석 달 동안 오벰에돔의 집으로 보냄으로써 레위 사람들의 죄를 기꺼이 인정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오벰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것을 알고 다시 행렬을 시작했다. 삼하 6:13 에 따르면, 이번에는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었다(들어올렸다).” 여기서 저자는 히브리어 [나싸](נָסָא)를 사용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채를 사용하여 언약궤를 들어올리는 것을 묘사하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에 나오는 동일한 용어다. 더욱이, 저자는 삼하 6:13 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멘 사람들이 여섯 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삼하 6:14-15 에서 우리는 행렬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춤을 추며 계속되었다는 것을 읽는다. 마침내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했다. 다시 한 번 언약궤가 제공하는 군사적 안전을 강조하기 위해, 저자는 삼하 6:18 에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하늘 군대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라고 전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께 헌신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심으로써 다윗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겸손한 헌신을 부각시키기 위해, 저자는 또한 사울의 딸 미갈이 수수한 제사장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춤추던 다윗을 부끄러워하는 짧은 장면을 추가했다. 그러나 다윗은 삼하 6:21 에서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고 말함으로써 자신의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복을 인정했다. 다윗은 미갈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으며 그의 왕도(王都)를 안전하게 지켜 주시는 복에 전심으로 감사했다.

#### *b) 왕조 수립(삼하 7:1-29 Establishment of Dynasty)*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의 첫 번째 주요 에피소드(삼하 5:6-6:23)인 다윗의 초기 업적을 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주요 에피소드(삼하 7:1-29)인 다윗 왕조의 수립을 살펴볼 것이다. 다윗과 선지자 나단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를 포함하고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적들로부터 안식을 주신 후에 일어났다.

이 잘 알려진 이야기에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지 못할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의 현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사무엘서를 처음 받은 고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윗이 성전을 **결코** 짓지 못했다는 사실은 다윗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안에서나 이스라엘 밖에서나 모든 위대한 왕들은 그들의 신을 위한 신전을 지었다고 널리 믿어졌다. 고대 근동의 왕실 비문들은 위대한 왕권의 표시로 건축한 신전들을 반복해서 열거하였다.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꺼이 지을 용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여 **그를 위한** 집, 곧 영원한 왕조를 먼저 세워 주시기로 결심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지시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다윗은 그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한 집, 곧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전념하였다.

다윗 왕조의 수립을 전하는 이야기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삼하 7:1-3)은 다윗과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의 짧은 대화를 보여준다. 다윗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윗은 나단의 승인을 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윗과 나단은 위대한 왕들이 그들의 신들을 위해 신전을 지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당연히 나단은 삼하 7:3 에서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다음 부분인 삼하 7:4-16 에서 우리는 바로 그날 밤 하나님과 나단 사이의 예기치 않은 대화를 듣게 된다. 이 대화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에는 보통 “집”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바이트](בַּיִת)가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다. 첫째로, 삼하 7:5-7 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의미하는 “집”을 지을 수 없다는 것을 나단에게 밝히셨다. 그러나 삼하 7:8-16 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 영원한 왕조를 의미하는 “집”을 지어 주심으로써 그를 높일 것이라고 선언하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다윗이 아니라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설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아들로부터 내려오는 왕들의 “집”을 영원히 지켜 주실 것이다.

(스트라우스[Mark L. Strauss] 박사)<sup>5</sup>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여호와를 위한 집, 곧 성전을 짓겠다고 제의했을 때, [일단 승인했던] 나단은 [여호와의 지시를 듣고 다시] 돌아와서 말했다. “왕은 여호와를 위해 집을 짓지 못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위해 집을 지어 주실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집”은 왕조를 의미했다. 사무엘하 7 장에 나오는 이 예언, 곧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으시고, 그의

---

<sup>5</sup> Dr. Mark L. Strauss is Professor of New Testament at Bethel Seminary, San Diego.

나라를 영원히 세우시고, 그의 후손이 다윗의 보좌에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라는 예언은 뒤 따르는 메시아 예언들의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특히 다윗 왕조, 곧 다윗 왕국의 붕괴 후 다시 언급하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고대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왕을 일으키신다는 것은 바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라는 것을 의미했다.

삼하 7:14-15 에서 하나님은 나단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삼하 7:14-15 개역개정) 14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15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 단락에는 “언약”을 뜻하는 히브리어 [브리트](ברית)가 사용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삼하 23:1-7 과 시편 89 편과 132 편과 같은 단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된 모든 요소가 들어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다윗의 가문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세우심으로써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나타내셨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모든 하나님의 언약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인간의 충성, 곧 다윗의 후손들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충성을 요구하셨다. 또한 다윗과 그의 후손은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거역하면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다. 하나님은 특히 다른 사람들을 통해 그들에게 해를 입히실 것이었다. 분열 왕국 기간과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다윗의 집의 문제 많은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한 저주를 다윗의 집에 내리셨는지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더라도 사울을 거부한 것처럼 결단코 다윗 왕조를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셨다. 하나님께서 삼하 7:16 에서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라.

(삼하 7:16)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사무엘하 7 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은 사무엘서 저자가 원래 독자들에게 제시한 신학적 관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했다.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충성을 요구하셨고,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을 징계하셨다. 그러나 이 징계가 아무리 심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다윗의 집을 다른 집으로 대체하지 않으셨다. 이런 이유로 장차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소망은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에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다윗 왕조가 수립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의 세 번째 부분(삼하 7:17-29)은 다윗과 나단의 두 번째 상호 작용을 전한다.<sup>6</sup> 나단은 하나님의 계시를 다윗에게 전했고, 다윗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절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충성의 깊이를 보여주었다. 다윗의 기도는 자기 집의 영속성이 자신과 이스라엘에게 복임을 인정했다. 또한 그는 이 복이 지구상의

<sup>6</sup> 역자 주: Youngblood("1, 2 Samuel" in REBC, 380, 394)는 사무엘하 7 장을 7:1-17 과 7:18-29 로 나누고 다음과 같은 개요를 제시했다.

<p>삼하 7:1-17 다윗과 맺은 주님의 언약</p> <p>A. 배경(7:1-3)</p> <p>B. 나단의 신탁(7:4-17)</p> <p>1. 서론(7:4)</p> <p>2. 본론(7:5-16)</p> <p>a. 하나님의 질문(7:5-7)</p> <p>b. 하나님의 약속(7:8-16)</p> <p>(1) 다윗 생전에 실현될 것(7:8-11a)</p> <p>(2) 다윗 사후에 성취될 것(7:11b-16)</p> <p>3. 결론(7:17)</p>	<p>삼하 7:18-29 다윗이 주님께 드린 기도</p> <p>A. 현재: 하나님의 은택에 대한 감사 (7:18-21)</p> <p>B. 과거: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것에 대한 찬양(7:22-24)</p> <p>C. 미래: 언약의 약속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행을 위한 기도 (7:25-29)</p>
---	--

모든 나라의 미래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인정했다. 삼하 7:19 에서 그는 “주 여호와여, 이것은 인류를 위한 가르침입니다!”라고<sup>7</sup> 말했다.

여러분은 삼상 2:10 에서 한나가 언젠가 이스라엘 왕의 힘과 승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로 확장될 것이라고 노래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다윗 왕조의 수립은 전 세계의 소망이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은 하나님께 단 한 가지 요청만 했다. 삼하 7:29 에서 그는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

### c) 추가 업적(삼하 8:1-9:13 *Further Accomplishments*)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다윗의 초기 업적과 왕조 수립 과정에서 어떻게 그에게 복을 주셨는지를 전한 후에, 저자는 다윗이 추가 업적을 이루도록 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루는 세 번째 에피소드(삼하 8:1-9:13)로 다윗의 예루살렘 시대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다윗의 추가 업적에 대한 기록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삼하 8:1-14)은 다윗의 추가 승리에 대한 요약を提供한다. 이 구절들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모든 방향으로 인도하는 수많은 보고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들은 다윗이 서쪽의 블레셋 사람들, 동쪽의 모압 사람들, 북쪽의 갈릴리 바다 너머의 사람들, 남쪽의 에돔 사람들을 상대로 거둔 승리를 다룬다. 저자는 이러한 전쟁 중에 다윗이

---

<sup>7</sup> 역자 주: Walter C. Kaiser, Jr., *Toward an Old Testament Theology*, 154-155: Immediately in verse 19b came the words: “And this is the law for man” (וְזֹאת תִּהְיֶה הַחֹרֶת לְאָדָם). ... it must be an ejaculatory type of sentence. ... Since the “this” of 2 Samuel 7:19b refers to content of the promise traced so patiently in the words of Nathan, and since that promise was knowingly extended to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as early as in the patriarchal revelations, we conclude that the best translation is “This is the charter for humanity.” ... With the realization that he had just been granted an everlasting dynasty, dominion, and kingdom, David blurted out in uncontainable joy: ““And this is the Charter of all mankind, O Lord God!” Thus the ancient plan of God would continue, only now it would involve a king and a kingdom. Such a blessing would also involve the future of all mankind.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헌신한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삼하 8:11 에 따르면, 다윗은 하맛 왕 도이의 아들 요람이 가져온 은그릇과 금그릇과 동그릇을 여호와께 드릴 때,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들에서 얻은", 곧 그의 적들로부터 노략하여 얻은 "은금과 함께 여호와께 바쳤다."

저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시는 복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끌기 위해 삼하 8:6, 14 에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고 논평했다. 그는 또한 삼하 8:2, 6, 14 에서 이 많은 적들이 다윗의 종이 되었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의 통치를 확장하셨음을 설명했다. 그리고 삼하 8:2, 7, 8, 11 에 따르면, 하나님은 또한 다윗에게 큰 재물을 갖도록 복을 주셨다.

이렇게 다윗의 승리를 요약한 후, 저자는 다윗의 추가 업적의 두 번째 부분(삼하 8:15-9:13)에서 그의 왕국 행정을 설명했다. 첫째로, 이 부분은 삼하 8:15-18 에서 왕권 행사에 관한 모세의 명령을 다윗이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요약한다. 저자가 삼하 8:15 에 표현한 바와 같이, "다윗은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sup>8</sup>

---

<sup>8</sup> 역자 주: Bergen(*1, 2 Samuel*, 351)과 Vannoy(*1-2 Samuel*, 315-316)에 의하면, 정의와 공의[미시파트 우츠다카 justice and righteousness]는 하나님의 성품의 주된 속성이다(욥 37:23; 시 33:5; 36:6; 45:6; 72:1; 99:4; 103:6; 사 5:16; 33:5; 렘 9:24; 미 7:9). 하나님은 모든 백성(겔 18:5, 19, 21, 27)과 왕(렘 22:3; cf. 신 17:18-19)에게 이 두 덕목을 요구하신다. 이것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개인과 공동체를 특징짓는다(시 106:3; 잠 21:3; 겔 18:5, 19, 21, 27; 33:14-19).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개인은 여호와의 심판을 받지 않고 언약적 약속과 복을 받는다(창 18:19; 시 106:3; 렘 22:15; 겔 18:5, 27; 33:14-19).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특히 이 덕목들을 지니도록 기대되었다([왕] 렘 22:3; 왕상 10:9; 대하 9:8; [메시아] 사 9:7; 렘 23:5; 33:15). Hamilton(*Genesis 18-50*, 19, n. 19)에 의하면, [츠다카 우미시파트](창 18:19; 시 33:5; 잠 21:3)보다 [미시파트 우츠다카](삼하 8:15; 왕상 10:9; 대상 18:14; 대하 9:8; 시 99:4; 사 32:16; 33:5; 56:1; 59:9, 14; 렘 9:23; 22:3, 15; 23:5; 33:15; 겔 18:5, 19, 21, 27; 33:14, 16, 19; 45:9; 암 5:7, 24)가 더 자주 나온다. 개역개정에서 이 두 단어는 조금 다르게 번역되어 있다. (렘 9:24) 사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윗이 정의와 공의로 통치한 방식을 예시하기 위해, 저자는 삼하 9:1-13 에 다윗이 므비보셋을 대우한 것에 관하여 썼다. 므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였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다윗이 헤브론에서 다스리던 동안 사울의 지지자들과 사울의 집에 보였던 다윗의 친절을 회상시켜준다. 이것은 또한 다윗과 요나단이 삼상 20:42 에서 서로에게 했던 충성의 맹세를 상기시켜준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삼하 9:1 에서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히브리어로 [헤세드](חֶסֶד "steadfast love, lovingkindness"), 곧 큰 "친절" 혹은 "신실"을 보여주었다. 므비보셋은 중증 장애인이었다. 그 당시 장애인들은 종종 수치스러운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다윗은 므비보셋이 자신의 왕궁에서 품위를 유지하며 살도록 정중히 환영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왕인지를 보여주었다.

---

(시 103:6)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쉬운성경: 여호와는 억눌린 자를 위해 **정의**롭고 **공평**한 일(츠다코트/미시파트)을 행하십니다.] (창 18:18-19)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츠다카/미시파트]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삼하 8:15)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미시파트/츠다카]를 행할새

(사 5:7)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미시파트]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학[미스파흐]이요 그들에게 공의[츠다카]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츠아카]이었고도다

(사 9: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미시파트/츠다카]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암 5:7) 정의[미시파트]를 쓴 썩으로 바꾸며 공의[츠다카]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암 5:24) 오직 정의[미시파트]를 물 같이, 공의[츠다카]를 마르지 않는 강 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암 6:12) 너희는 정의[미시파트]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츠다카]의 열매를 쓴 썩으로 바꾸며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초기의 복들(삼하 2-9 장)의 구조와 내용을 탐구해 왔다. 이제 우리는 이 장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에 대해 몇 가지 논평을 해야 한다. 다윗 통치의 이 부분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들이 오늘날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던 초기 시절에 일어난 사건들의 세부 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장들이 우리와 거의 관계가 없다고 느끼기 쉽다. 겉으로 보기에 다윗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매우 다른 것 같다. 우리 중 헤브론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우리 모두는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여러 시대에 걸쳐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이 성경에 영감을 주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이 장들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항상 그렇듯이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심사숙고할 많은 방법이 있다. 이 강의에서 시간이 허락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방법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강의처럼, 저자의 두 가지 강조점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초기의 복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을 연결하는 선을 그릴 수 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저자의 강조를 살펴볼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저자의 강조를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의 언약들을 살펴보자.

###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우리가 보았듯이, 이 장들은 반복적으로 다윗 생애의 이 단계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리고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계속 그분의 은택을 보이셨다. 저자는 다윗 통치의 이 부분에서 다윗을 이상화하였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준, 특히 예배와 왕의 통치에 대한 모세의 규례들을 어떻게

이행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전했다. 책의 이 부분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이었다. 이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왕조를 약속하셨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의 시대에 살아가는 원래의 독자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였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택을 드러냈다. 이러한 요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요구하시는 여러 가지 충성을 가리켰고, 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게 봉사할 때 받을 수 있는 복들을 가리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약의 가르침에 비추어 다윗의 생애의 이 시점에 드러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적용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첫째로, 다윗의 초기의 복들은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택으로 향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그의 완전한 충성에 대해 그리스도를 존경하고,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영원한 복을 인정해야 한다. 둘째로, 다윗의 예배에 대한 신실한 헌신과 그의 정의롭고 공의로운 통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을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다윗은 그의 신실함으로 인해 많은 복을 받았다. 셋째로, 우리는 성령님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우리의 충실한 봉사에 대하여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임을 확신할 수 있다.

다윗 생애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무리 가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이 장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은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에도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한다.

##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코레아[David Correa] 박사)<sup>9</sup> 구약을 살펴보면,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적어도 이중 강조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구약은 하나님께서 항상 왕이신 것을 가르친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영원한 왕이시다. 그분은 과거에 왕이셨고, 현재에 왕이시며, 그분은 항상 왕으로 계실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구약에서 만나는 다른 강조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러 오실 것이라는 메시지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한 가지 목적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세상이 그의 궁전 역할을 하기를 원하셨다. 그분은 자신의 하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고 싶으셨다. 예수님도 같은 가르침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분은 “우리를 당신님의 나라로 데려가십시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당신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사역에 있어서 그분의 아버지와 같은 우선 순위를 갖고 계셨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우선 순위는 그분의 하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시는 것이다. 이 긴 역사적 과정은 정확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최종 단계에 이를 수 있다.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여러 가지 중요한 방법으로 그분의 나라를 발전시켰다.

---

<sup>9</sup> **Dr. David Correa** is Pastor of Jesus Presbyterian Church and Director of the Youth Ministry Institute at San Pablo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Merida, Mexico.

-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통치 아래 하나가 되었다.
- 다윗은 하나님의 적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지상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수도로 세웠다.
- 다윗은 사울 왕국을 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의 경계를 넓혔고, 그렇게 함으로써 더 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 나라에 포함시켰다.
- 다윗은 정의와 공의로 통치했다.
- 이스라엘은 유망하고 영구적인 왕조의 안정을 얻었다.

사무엘서 저자는 원래 독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이러한 발전을 강조했다. 그 소망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미래에 더 큰 일을 성취하시길 바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약의 강조는 예수님이 다윗의 업적을 충만하게 하실 다윗의 완벽하게 의로운 아들임을 지적한다. 그러나 우리가 이 강좌에서 언급했듯이, 그리스도는 세 단계를 통해 이 역할을 수행하신다. 그 세 단계는 그분의 초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개시,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지속,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 때문에 다윗의 초기의 복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분의 나라를 세우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더 큰 일을 향하도록 해야 한다.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 되게 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분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남북에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연합시키셨다. 다윗이 원수를 물리친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악을 단호히 물리치셨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다윗 성에서 가장 큰 일을 하시고, 하늘에 있는 다윗의 보좌 위에 그분의 정당한 자리를 잡으셨다. 게다가, 예수님께서서는 사도들에게 다윗 왕국을 넘어 하나님 나라의 경계를 확장하라고 명령하셨다. 이러한 확장을 통해 예수님께서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자기를 믿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위대한 아들로써 예수님께서서는 완벽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셨다.

이 외에도, 이 장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의 지속에서 어떻게 다윗의 업적을 대체하셨는지 생각해보라고 촉구한다. 교회의 전체 역사를 통해 예수님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인도하셨다. 그분은 계속해서 자기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복을 쏟아 부으신다. 2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더 확장하셨다. 그리고 그분은 전 세계에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신다.

마지막으로, 다윗의 업적들이 원래의 독자들을 미래로 향하도록 한 것처럼, 이제 그것들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대가 완성될 때 성취하실 것으로 향하도록 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분은 자신의 의로운 통치 아래 모든 백성을 연합시키실 것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적, 육적 적들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자신의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경계가 전 세계를 가득 채울 정도로 확장될 때,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새 창조의 중심으로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우주적인 정의와 공의로 영원히 전 세계를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신약의 가르침을 따를 때, 우리는 다윗의 초기의 복들이 우리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윗의 초창기는 그리스도께서 초림을 통해 이루실 더 경이로운 일들을 고대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의 시대까지도 계속 해 오신 일을 더 잘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그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해 하실 일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 왕의 통치 이야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 초기의 놀라운 복들에 대해 묘사한 것(삼하 2-

9 장)을 살펴보았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10-20 장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 후기의 저주들을 살펴볼 것이다.

### III. 후기의 저주들(LATER CURSES)

사무엘하 7 장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가족을 사울을 대했던 것과는 다르게 대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여러분은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의 후손들을 이스라엘 보좌에서 완전히 거부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과 맺은 언약에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서 그의 가문을 결코 완전히 거부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마찬가지로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을 어기면 저주로 그들을 징계하겠다고 맹세하셨다.

이 시점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어떻게 해서 다윗과 그의 왕실 후손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며 그 저주가 얼마나 끔찍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종류의 어려움은 원래 독자들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저주하셨을 때에도 그와 그의 왕실 혈통을 보존하셨음을 보여주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전 세계로 영광스럽게 확장하시는 것은 바로 다윗 왕조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었다.

우리는 평소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 후기의 저주들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이 장들(삼하 10-20 장)의 구조와 내용을 검토하며 원래 의미를 탐구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장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다룰 것이다. 그럼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다윗 후기의 저주들을 전하는 이 장들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사무엘하 10-20 장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곧 살펴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미리 보기를 해야 한다. 다시 한 번,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저자의 관점들이 이 장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서에서 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두 가지 주제를 모두 다루었다.

한편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의 이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가 심각한 차질을 빚었다고 공공연히 인정했다. 다윗의 통치 초기에 빠르게 연속되던 웅장한 업적은 중단되고 고난의 시기가 계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차질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다윗의 집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지 않았다고 신중하게 설명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얼마나 자비롭게 지탱해 주셨는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또한 이 장들에서 다윗 왕국의 혼합된 상황들이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곧 알게 될 것이다. 이전 장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상호 작용의 모든 측면을 계속 특징짓게 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모세 율법의 표준대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인간의 충성을 계속 요구하셨다. 그러나 이 장들은 다윗과 그의 집이 모세 율법의 표준들을 명백히 위반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저주가 다윗과 그의 집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나라에 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의 저주만을 전하지는 않았다. 그는 어떻게 다윗이 자신의 죄를 겸허히 뉘우쳤는지를 보여주었다. 이어서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을 지탱해 주심으로써 다윗에게 복을 베푸신 것을 보여주었다.

(아버벡[Richard E. Averbeck] 박사)<sup>10</sup> 권좌에 오르는 과정에서 다윗 왕은 기름 부음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은이로 등장했다. 그는 시들을 짓는 것을 포함한 온갖 방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표현했다. 눈에 띄는 것 중 하나는 그가 정말로

---

<sup>10</sup> **Dr. Richard E. Averbeck** is Director of the PhD (Theological Studies) an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Semitic Languages a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주님께 대한 그의 사랑과 충성은 계속 성장하였고, 사울이 그의 기쁨 부음 받은 것에 저항하며 그의 생애 동안 그를 적대하여 저지른 모든 일의 의해 계속 시험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였다. 사무엘하에 이르러 왕으로 옹립되었을 때도, 그는 주님께 충직하고 신실했다. 그렇지만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하신 것과 주님 앞에서 진실한 것이 의미하는 것에 대해 때때로 집중하지 않았다. ... 상황이 악화되었다. 그러나 그는 주님께 신실했고, 계속 주님께로 돌아갔다. 우리가 다윗의 삶에서 배우는 것들 중 하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조차도 최악의 범죄를 저지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하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다윗 후기의 저주들(삼하 10-20 장)의 구조와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첫째로, 삼하 10:1-12:31 에서 우리는 다윗 왕국에 닥친 초기 문제들을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 삼하 13:1-20:26 에서 우리는 다윗 왕국에 닥친 확장된 문제들을 고찰할 것이다. 그럼 먼저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났던 다윗의 초기 문제들에 대한 저자의 기록을 살펴보자.

### **1. 초기의 문제들(삼하 10:1-12:31 Initial Troubles)**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윗의 초기 문제들을 밋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 이야기로 간단히 요약하는 것이 보통이다. 저자는 삼하 11:2-12:25 에서 다윗과 밋세바를 직접 다루었다. 그러나 여기서 드러나는 저자의 목적을 식별하기 위해, 그가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를 암몬 사람들의 반란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다루는 더 큰 내러티브의 틀 안에 포함시켰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 *a) 초기 승리(삼하 10:1-11:1 Initial Victory)*

이 더 크고 중요한 내러티브의 첫 부분(삼하 10:1-11:1)은 다윗이 암몬 사람들의 반란에 대한 다윗의 승리를 보여준다. 이 이야기는 당시 다윗에게 복종하던 암몬 자손의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호의적으로 반응한 데서 시작된다. 삼하 10:2 에서 다윗은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풀 것 같이 하리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공정하고 공평한 행정의 또 다른 예를 본다. 그러나 암몬 자손은 다윗의 친절을 환영하기보다는 다윗의 신하들을 염탐꾼이라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그들을 불명예스럽게 다윗에게 돌려보냈다.

암몬 자손은 그들이 다윗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을 어겼음을 알고, 수많은 아람 사람들과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였다. 다윗의 장군 요압은 이 연합군을 완전히 물리쳤다. 아람 사람들은 다윗에게 항복했다. 암몬 자손은 요새화된 랍바 성으로 도망하였다. 다윗의 초기 승리에 대한 이야기는 “봄이 돌아왔을 때 다윗이 요압과 부하들을 보내므로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 성을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다(삼하 11:1).”라는 설명으로 끝난다.

### *b) 최종 승리(삼하 12:26-31 Final Victory)*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12:26-31 에서 암몬의 반란을 진압하는 다윗의 최종 승리를 언급함으로써 이 더 큰 내러티브의 틀을 완성했다. 얼마 후 요압은 왕성인 랍바를 쳐서 점령하려고 했다. 그는 다윗이 정당하게 다윗 자신의 승리라고 주장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합류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요압과 합류한 다윗은 당당하게 암몬 자손을 대파하였다. 다윗과 그의 군대는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더 큰 내러티브의 틀(삼하 10:1-11:1 과 삼하 12:26-31)은 매우 매끄럽게 잘 맞아떨어지므로 저자가 기존의 한 문서에서 그것을 가져왔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를 그 중간에 삽입함으로써 이

긍정적인 승리에 대한 내러티브를 변형시켰다. 이 삽입된 내러티브(삼하 11:2-12:25)는 중요한 사실을 소개한다.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암몬 자손을 이기도록 해 주셨지만, 그분은 또한 다윗의 죄로 인해 다윗과 그의 집에 저주를 내리셨고, 다윗의 왕국은 연이어 차질을 빚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러티브가 밝혀주듯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진심 어린 회개에 대한 응답으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지탱해 주셨다.

### *c) 다윗과 밋세바(삼하 11:2-12:25 David and Bathsheba)*

이 친숙한 이야기(삼하 11:2-12:25)는 세 개의 에피소드로 나뉜다. 첫 번째 에피소드(삼하 11:2-27)는 다윗의 죄로 시작된다. 그것은 다윗이 다른 사람들을 전투에 보냈다는 삼하 11:1의 설명에 이어 나온다. 여기서 다윗의 모습은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여러 차례 했던 것과 똑같았다. 다윗은 전투에 나가지 않아 안전한 동안, 다윗의 군대에서 충직한 용사인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염탐했다. 이 이야기 전반에 걸쳐 밋세바는 수동적이고 순종적인 것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다윗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왕권을 여러 번 남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먼저, 그는 밋세바에게 자기에게 오라고 명령하고, 그녀와 더불어 동침했다. 그런 다음, 밋세바가 임신한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아에게 전투에서 돌아오라고 명령했다. 이 책략이 효과가 없었을 때, 다윗은 요압에게 우리아가 전투 중에 반드시 죽게 하라고 명령했다.

그 당시 다른 나라들의 문화 규범에 따르면, 다윗이 한 일은 왕권을 가진 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 게다가, 다윗은 우리아가 죽은 후 밋세바가 관습적인 애도 기간을 갖도록 해 줌으로써 적절한 예절 기준을 지켰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그녀를 자기 아내로 궁중으로 데려왔다.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은 다윗이 했던 일을 왕에게 용납될 만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것이 다윗의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다윗이 한 일을 최소화하려는 어떤 노력에도 맞서기 위해,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11:27 에 나오는 중요한 논평으로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했다. 여기에 그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고 기록했다.

(오스왈트[John Oswalt] 박사)<sup>11</sup> 밋세바에 대한 다윗의 죄는 정말로 다윗의 내러티브가 걸려 있는 경첩이다. 그 이전에서는 여러분이 왕국의 수립을 보지만, 그 이후에서는 가족의 해체를 본다. 이것이 그토록 비극적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다윗이 왕권에 대한 이해 측면에서 미끄러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대 세계에서 왕은 절대적이었다. 그래서 왕은 이웃의 아내를 원하면, "무슨 대수냐?"며 임의로 그 여자를 취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이해로 빠져들고 있었다. "나라의 참되신 대왕[=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진짜 요점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은 바로 이 시점이다. 물론, 그가 단지 밋세바를 취한 것만이 아니다. 그는 이 일을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그것을 혼합시킨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이 고백하며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매우 흥미롭다. 우리의 첫 번째 본능은 그것을 은폐하는 것이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고 있었다.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밤을 보내기 위해 집으로 가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음으로써 그의 왕보다 더 영예를 받을 만하다고 판명되었을 때, 당연히 다윗은 그를 죽이기로 결심한다.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 이웃의 아내와 자기 이웃에게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절대적인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sup>11</sup> **Dr. John Oswalt** is the Visiting Distinguished Professor of Old Testament at Asbury Theological Seminary.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야!”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이 이야기에서 나에게 인상적인 것은 내레이터가 먼저 일어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했다. 그는 이렇게 했다. 그는 저렇게 했다.” 그런 다음, 그는 가장 마지막 문, 곧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는 논평을 준다. 이 모든 일에 찰칵 소리내는 것이 있었다. 그것이 다윗이 한 짓이다. 그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신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스스로 결정할 것이라고 결심했다.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의 두 번째 에피소드(삼하 12:1-14)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나단의 예언적 심판을 다룬다. 여기서 그는 다윗의 범죄의 심각성을 명확히 했다. 나단의 심판 선언이 매우 중요했으므로 사무엘서 저자는 그것을 상당히 자세하게 전했다.

나단의 선언은 삼하 12:1-7 의 예언적인 비유로 시작되었다. 많은 해석자들은 이 비유가 고대의 법적 소송의 한 형태를 나타낸다고 올바르게 제안했다. 이 비유에서 나단은 다윗에게 가상의 법적 사례를 제시했다. 양과 소가 심히 많은 한 부자가 한 가난한 사람의 유일하고 사랑스러운 작은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기 손님을 위해 잡았다. 다윗은 이 불의에 대한 생각에 격분하며 그런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으므로 네 배로 갚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바로 그 순간, 삼하 12:7 의 전반절에서, 나단은 다윗을 직접 대면하여 가리키며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이 예언적 비유에 이어서 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하늘 법정에서 받은 말씀을 계속 전했다. 삼하 12:7-9 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나단의 예언적인 비난을 발견한다. 나단은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로우셨는지를 회고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은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충성으로 응답하지 않고, 대신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

그런 다음, 삼하 12:10-14 에서 우리는 나단이 다윗의 불충의 결과를 선언했던 예언적인 선고를 발견한다. 다윗과 그의 가족에게 두 종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삼하 12:10 에서 나단은 다윗의 왕실 가족이 지속적인 폭력으로 타락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리고 삼하 12:11 에서 나단은 다윗의 왕실 가족이 그에게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발표했다.

다윗이 간음하고, 책략을 꾸미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기 위해 우리아를 죽게 함으로써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죄는 다윗의 경우 특히 지독히 나쁜 것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이 왕권을 노골적으로 남용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전 강의에서 보았듯이, 사울은 주로 왕권에 대한 모세의 제한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나단의 예언은 다윗의 행위가 사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혐오스럽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저주들이 아무리 비극적일지라도, 사무엘서 저자는 왜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왕족 혈통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으셨는지 재빨리 지적하였다. 사무엘이 대면하여 지적했을 때 변명만 늘어놓고 회개하는 척만 했던 사울과 달리, 다윗은 즉시 죄를 인정했고 하나님은 자비로 응답하셨다. 삼하 12:13-14 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하 12:13-14 개역개정)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다윗은 자신을 낮추었다. 그 결과, 나단은 자비로운 심판의 말로 응답했다. 그는 다윗에게 "당신은 죽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다윗이 "여호와를 완전히 멸시했으므로" 징계의 저주는 여전히 임할 것이다. 나단이 삼하 12:14 에서 말한 대로, 다윗이 "낳은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의 세 번째이자 마지막 에피소드(삼하 12:15-25)는 우리에게 나단의 말이 즉각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여준다. 이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밋세바가 출산한 다윗의 아들이 실제로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계속하였다. 아들이 죽기 전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이키시어 자식이 죽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일단 아이가 죽자, 다윗은 하나님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 사무엘서 저자는 밋세바가 둘째 아들을 낳았다는 짙막한 설명(삼하 12:24-25)으로 이 세 번째 에피소드를 마감했다. 이 사건은 저자가 다윗의 회개로 인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자비를 미묘하면서도 놀랍게 상기시키는 일이었다. 다윗의 둘째 아들은 다름아닌 솔로몬이었다.

물론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은 솔로몬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발전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왕국을 새로운 땅으로 확장하고, 이스라엘에게 전례 없는 부와 권력을 가져왔다. 그리고 솔로몬은 장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다윗의 모든 왕손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이 밋세바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원래 독자들 중 적어도 일부 사람들의 마음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다. 어떻게 밋세바의 아들을 통해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저자는 이 질문에 답하며 삼하 12:24 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지적했다. 삼하 12:25 에 따르면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보내시어 그의 이름을 "여호와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의 여디디아라고 부르도록 하셨다. 나단의 예언은 다윗의 집에 닥친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복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소망이 여전히 솔로몬의 왕실 혈통에서 나온 다윗의 후손들에게 남아 있음을 보여주었다.

다윗의 초기 문제들에 이어서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13:1-20:26 에서 다윗 왕국에 닥친 확장된 문제를 다루었다.

## 2. 확장된 문제들(삼하 13:1-20:26 Extended Troubles)

이 장들의 의의를 이해하려면 주요 인물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물론, 다윗과 요압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장들은 또한 다윗의 아들들에게도 초점을 맞춘다. 삼하 3:2-3 은 다윗의 첫 세 아들이 암논, 길르압, 압살롬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준다.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은 다윗의 명백한 왕위 계승자였다. 성경은 다윗의 둘째 아들 길르압에 대해 우리에게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그는 어린 나이에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 결과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암논에 이어 왕위 계승 서열 2 위였다. 이 장들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왕위 계승 서열 1 위와 2 위와 관련하여 나단의 심판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알게 된다.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에 대한 이 기록은 5 가지 주요 단계로 나뉜다. 먼저 무대를 설정한 후 저자는 경과된 연수를 나타내는 시간 표기로 각 후속 단계를 소개했다.

### a) 암논의 다말 강간(삼하 13:1-22 Amnon's Rape of Tamar)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의 첫 번째 단계(삼하 13:1-22)는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충격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한다. 이 에피소드는 다윗의 맏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에 대한 욕정에 사로잡혀 있는 데서 시작된다. 암논은 다윗을 속여서 다말이 혼자서 그의 침실에 오도록 만들었다. 그런 다음 그는 물리적으로 그녀를 강간했고, 나중에 그녀를 가혹하게 거부했다. 이 사건의 정서적 영향은 그것이 다윗의 집에 가져온 위기를 반영한다. 삼하 13:20 에서 우리는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냈다.”라는 말씀을 읽는다. 삼하 13:21 은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했다.”라고 말한다. 삼하 13:22 은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전한다.

### **b) 압살롬의 복수와 피신(삼하 13:23-37 Absalom's Revenge and Flight)**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의 두 번째 단계(삼하 13:23-27)는 다말이 강간당한 지 2 년 후에 일어난다. 그것은 압살롬의 복수와 도주를 묘사하고 있다. 압살롬은 속뜻을 숨기며 아버지 다윗에게 간청하여 암논과 그의 다른 형제들이 예루살렘을 떠나 자기와 함께 양털을 깎는 일에 참여하게 만들었다. 거기서(에브라임 곁 바알하솔) 압살롬의 종들은 암논을 살해했고, 압살롬은 필사적으로 도망했다. 이 시기에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나타내기 위해, 삼하 13:36-37 은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고 묘사하고 있다.

### **c) 압살롬의 귀환(삼하 13:38-14:27 Absalom's Return)**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의 세 번째 단계(삼하 13:38-14:27)는 압살롬의 예루살렘 귀환에 초점을 맞춘다. 3 년 후 다윗은 슬픔이 줄어들었고 압살롬을 보고 싶어했다. 요압은 다윗의 의중을 간파하고 다윗을 속여서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만들었다. 요압은 "지혜로운 여인"(혹은 "재치 있는 여인"으로 번역될 수도 있음)을 불러 다윗 앞에 나아가서 자기 형제를 죽인 아들을 보호하려는 시늉을 하도록 했다. 다윗의 동정심을 얻은 후, 그녀는 다윗이 왕으로서 판결하는 일에 어떤 잘못도 할 수 없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아첨했다. 이 거짓말로 그녀는 다윗을 설득하여 압살롬이 돌아오도록 허락하게 만들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왕의 얼굴은 볼 수 없었다. 그래서 압살롬의 좌절감이 커졌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서 저자는 삼하 14:25 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다."라고 언급함으로써 부자 사이의 불화를 강조했다. 한 세대 전의 사울처럼, 압살롬의 뛰어난 외모는 이스라엘 나라에 더욱 큰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d) 압살롬의 예루살렘 흥기(삼하 14:28-15:6 Absalom's Rise in Jerusalem)*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의 네 번째 단계(삼하 14:28-15:6)는 2 년 후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이 떠오르는 것을 전한다. 압살롬은 다윗의 왕위 계승자로 인정받기를 간절히 원했다. 그래서 마침내 그는 요압을 설득하여 자신이 왕의 얼굴을 볼 수 있는 허락을 받아내도록 하였다. 압살롬이 다윗에게 나아갔을 때, 그는 왕 앞에서 겸손한 척했다. 그러자 다윗은 어리석게 화해를 제안했고, 입맞춤으로 압살롬을 그의 정당한 계승자로 인정했다. 그 후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자기 앞에 호위병 50 명을 세웠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다윗을 만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위해 법정 소송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입하여 부당한 특혜를 베풀며 많은 충성스러운 추종자들을 얻었다. 이 네 번째 단계의 끝에 나오는 삼하 15:6 이 전하는 대로, "이렇게 하여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e) 압살롬의 반역과 패배(삼하 15:7-20:26 Absalom's Rebellion and Defeat)*

다윗의 확장된 문제들의 마지막 단계(삼하 15:7-20:26)는 압살롬의 반역과 패배에 대한 긴 이야기이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서 떠오른 지 4 년 후 압살롬은 다시 한 번 다윗을 속이고 거짓된 핑계를 대고 예루살렘을 떠나 헤브론으로 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그곳에서 백성은 압살롬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언했다.

압살롬의 반역 소식을 듣고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도망했다. 예루살렘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그와 함께 도망쳤다. 그러나 다윗의 믿을 만한 모사 아히도벨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이 그 반역에 가담했다. 다윗은 슬기롭게 그의 친구 후새를 포함하여 요직에 있는 일부 추종자들을 예루살렘에 남겨 두었다. 다윗은 또한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라고 명령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할 때 므비보셋의 종인 시바가 그와 합류했다. 그러나 사울 가문의 베냐민 사람 시므이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떠날 때 그를

조롱하고 저주했다. 다윗은 부하들이 촉구한 대로 시므이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며 삼하 16:11 에서 “여호와께서 그[=시므이]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고 말했다.

한편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가 다윗의 보좌를 차지했다. 아히도벨의 조언에 따라 압살롬은 다윗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참했다. 아히도벨은 또한 압살롬에게 즉시 다윗을 공격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다윗의 충성스러운 모사 후새는 압살롬을 속여 그의 공격을 연기하도록 만들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전령을 보내 경고했고, 다윗은 피신하여 전투를 준비할 수 있었다.

치열한 전투 끝에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를 이겼다. 다윗이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요압은 기회를 보고 그를 죽여버렸다. 여기서 사무엘서 저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의 왕국을 저주하셨는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다윗은 승리를 축하하기보다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파서 삼하 18:33 에 기록된 대로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하며 울부짖었다.

(트리뮤[Oliver L. Trimiew, Jr.] 박사)<sup>12</sup> 압살롬에 대해 몇 가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그는 분명히 여기서 야망을 가진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는 또한 꽤 무자비한 아들이었다. 암논이 그의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한 후, 그것에 대해 복수를 한 사람은 압살롬이다. 여기서 그는 꽤 비열한 방법으로 복수한다. 압살롬은 그를 좋은 시간에 초대한 다음 본질적으로 그 일에 대하여 정말로 복수를 한다. 여기서 압살롬은 다윗에 대해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그는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다른 영향력

---

<sup>12</sup> **Dr. Oliver L. Trimiew** is Associate Professor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and Chair of Interdisciplinary Studies Department at Covenant College.

있는 사람들과 함께 성문에서 백성을 만나 호의를 베풀며, 백성이 벌써 그에 대하여 왕의 자질이 탁월하다는 생각을 갖도록 애쓰며 ... 자신을 이런 새로운 왕으로 세우려고 노력했다. 여러분은 아마 그 시점에서 압살롬이 승리할 것처럼 보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일이 나를 놀라게 한다. 사실, 조류가 변하고, 다윗의 군대가 승리하기 시작하고, 그들은 압살롬과 마주친다. 여기서 압살롬은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나무에 매달린 채로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다윗의 부하 중 한 명에게 죽임을 당한다. 다윗이 그를 위해 울면서 그를 위해 울부짖는 그 이야기에는 정말 중요한 요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 관계의 본질에 대한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한다. 나는 그것이 부자간의 갈등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나는 그것이 어떻게 한 가정에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함께 잘 있다가 서로 소원해지고 결국 적이 될 수 있는지를 매우 현실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결코 궁극적으로, 그는 적어도 다윗의 편에 있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의 출세는 헛된 결말을 보게 되었다. 비록 다윗이 쫓겨나는 동안 압살롬에게 충성을 바치는 사람들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을지라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돌보시며 이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도록 해 주실 것이란 의식을 갖고 있었다. 물론 우리는 압살롬에게 결국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다.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로 끝난 후, 다윗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왕국의 이후 상황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했다. 하나님의 자비로 다윗의 왕국은 계속되었지만, 다윗은 그의 통치 초기를 특징짓던 큰 복을 경험하지 못했다. 유다 사람들은 그를 지지했다.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던 베냐민 사람들, 시므이, 므비보셋과 화해했다.

길르앗 사람들도 다윗을 지지했다. 그러나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었다. 그리고 다윗은 베냐민 사람 세바의 심각한 반역을 진압해야 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복을 주시며 그와 그의 집을 지탱해 주셨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죄로 인해 그의 왕국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이스라엘은 그들을 다스릴 다윗의 의로운 아들, 곧 다윗보다 더 의로운 사람을 필요로 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저주가 다윗 왕국에 약속된 큰 복에 자리를 내줄 것이다.

지금까지 다윗의 후기 저주들(삼하 10-20 장)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았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 장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논의할 것이다. 다윗 통치의 이 부분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구약에서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들이 자신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사무엘서의 이 장들은 하나님의 복에 집중하지 않는다. 대신 그것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적 저주로 어떻게 다윗을 징계하셨는지를 알려준다. 우리가 당연히 다윗의 삶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알고 싶지 않더라도, 그것들은 여전히 우리에게 적용된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므로 우리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징계하시며 믿음과 의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신다.

다윗의 후기 저주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고찰할 때,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과 연결하는 두 가지 주요 강조점을 다시 한 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한 강조를 고찰하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그럼 하나님의 언약들부터 시작해보자.

##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 장들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택에 덜 집중하고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충성을 유지하지 못했는지에 더 집중했다. 저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저주들로 징계하셨는지를 강조했다. 그 저주들에는 밋세바가 낳은 첫 아들의 죽음, 그의 아들 암논과 압살롬을 통해 다윗의 왕국에 닥친 끔찍한 시련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진지한 겸손과 회개에 그의 왕국을 지탱해 주시는 복으로 응답하셨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신약에 비추어 이러한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적절하게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첫째로, 다윗의 후기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윗과 우리의 대왕 예수님 사이에 현저한 대조를 보여준다. 다윗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을 다하지 못했고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안겨주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벽하게 충성하셨고, 계속해서 완벽하게 충성하고 계시며, 항상 하나님께 완벽하게 충성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든 요구 사항을 의롭게 이행하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

그러나 둘째로, 우리 모두는 오늘날 그리스도의 교회가 완벽함과 거리가 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은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충성의 표준에 부응하지 못한다. 그리고 히 12:3-17 과 같은 구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듯이, 우리 모두는 현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적합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징계에 직면한다.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추종자라고 부르지만 실제로 구원적 신앙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온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현재 삶의 고난들은 결국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징계를 통한 견인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보상받을 것이다.

따라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실패를 거부하고 그의 진지한 회개를 본받아야 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해야 한다. 우리는 다윗과 그의 아들들의 실패를 피해야 하고, 만일 실패하면 겸손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다윗의 기업을 자비롭게 지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나라에서 참된 신자들의 기업을 자비롭게 지켜 주실 것이다.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이 어떻게 다윗의 삶의 이 단계에서 적용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장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신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는 다윗과 그의 집의 실패를 극복하신 다윗의 아들로써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의 실패를 단 번에 극복하시지 않는다. 이미 언급했듯이, 그분은 세 단계를 통해 이 일을 완수하신다. 이 세 단계는 그분의 초림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개시,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의 지속, 그리고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윗의 후기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를 개시하시면서 거두신 승리들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지상 사역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섬김은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 절정에 달했다. 그분은 죽으심으로 다윗과 그의 집 그리고 모든 시대의 다른 참된 신자의 실패에 대한 대가를 치르셨다. 이로 인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그분의 신실하신 봉사에 대하여 부활과 승천이라는 상을 받으셨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나오는 모든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 새 생명으로 태어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있다.

이 외에도, 이 장들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완전한 의로 섬기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교회 역사 전반에 걸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다스리신다. 그분은 시시각각 하늘 보좌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신다. 2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예수님께서서는 다윗과 그의 집의 실패를 반전시키셨다. 그분은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온 세상으로 확장하심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넓혀 가고 계신다.

물론 다윗의 후기에 그와 그의 집에 닥친 저주를 고려할 때, 우리는 우리 시대의 완료시에 있을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한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영육 간의 적을 완전히 물리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각각 완벽하도록 만드실 것이다. 그분은 전 세계적인 그분의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그날에 하나님 백성의 실패는 희미한 기억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기신 분으로, 그리고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 창조의 헤아릴 수 없는 기쁨을 주신 분으로, 존경할 것이다.

지금까지 다윗 왕의 통치에 있어서 초기의 복들(삼하 2-9 장)과 후기의 저주들(삼하 10-20 장)을 탐구하였으므로,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의 세 번째 주요 부분(삼하 21-24 장)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지속적인 은택을 살펴볼 것이다.

#### **IV. 지속적인 은택(ONGOING BENEFITS)**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 보았듯이, 저자는 원래의 독자들이 주로 다윗의 집의 불순종 때문에 시련을 겪을 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 사무엘서를 썼다. 그들의 나라는 분열되었고, 적들은 그들을 물리쳤으며, 하나님의 많은 백성이 국외로 추방되었다. 솔직히 말하면, 다윗의 후기 저주들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스라엘에게 상황이 더 나아지리라는 소망을 많이 주지 못했다. 그러나 사무엘서 저자는 그들의 미래에 관하여 독자들을 안심시키고 싶었다. 그래서 그는 책을 부정적인 설명으로 마무리하기보다는 다윗의 통치의 여러 시기에 일어난 여러 사건들을 모아서 다윗의 집에서 나올 의로운 왕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져올 수 있는 복의 종류를 보여주었다.

다윗 통치의 다른 부분들을 탐구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다윗의 집의 지속적인 은택을 살펴볼 것이다. 먼저,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삼하 21-24 장)의 구조와 내용에 대해 설명할 것이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살펴볼 것이다. 그럼 먼저 이 마지막 장들의 구조와 내용을 살펴보자.

## **A. 구조와 내용(STRUCTURE AND CONTENT)**

이전 부분들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먼저 이 장들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들의 관점에서 요약할 것이다. 한편으로,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서 다윗의 통치의 여러 시기에 발전한 몇 가지 방식을 설명하고 반복한다. 이 장들에서 다윗은 그의 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가져왔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고, 다윗은 자신의 영감 받은 말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가 발전할 도구로 그의 집을 세우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다른 한편으로, 사무엘서 저자는 또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에 비추어 다윗과 그의 왕조의 지속적인 은택을 설명했다. 이 장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 통치의 여러 시기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택을 베푸셨는지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충성을 요구하셨는지를 보여준다. 그것들은 불순종과 순종이 어떻게 저주와 복의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지적한다. 다윗의 통치 전반에 걸쳐 이러한 언약의 역학적 원리를 지적함으로써, 저자는 모든 세대의 하나님 백성이 누릴 복에

대한 소망이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올 것이라는 그의 요지를 분명히 했다.

사무엘하 21-24장의 구조와 내용을 식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이 장들은 6 개의 주요 부분으로 나뉜다.

1. (삼하 21:1-14) 사울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야기
2. (삼하 21:15-22)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
3. (삼하 22 : 1-51) 다윗의 왕조 노래
4. (삼하 23:1-7) 다윗의 왕조 유언
5. (삼하 23:8-38)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의 목록과 그들의 영웅적 행위들
6. (삼하 24:1-25) 다윗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야기

우리는 이 배열에 대해 몇 가지 일반적인 언급을 해야 한다. 우선, 이 장들에 기록된 사건들은 연대순이 아니다.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해석자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삼하 21:1-14)의 연대를 다윗의 **통치 후기**로 바르게 보았다.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삼하 21:15-22)는 아마도 다윗이 **초기에 복을 받을 때** 일어났을 것이다. 다윗의 왕조 노래(삼하 22 : 1-51)는 삼하 22:1 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라고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다윗 **통치의 아주 이른 시기**를 가리킨다. 다윗의 왕조 유언(삼하 23:1-7)은 그의 **생애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한 말임을 나타내기 위해 그의 “마지막 말”이라고 불린다.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두 번째 기록(삼하 23:8-38)은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여러 시점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두 번째 사례(삼하 24:1-25)를 역대상

21 장의 병행 기록과 비교해 보면, 우리는 그것이 복을 받은 **다윗의 초기가 끝날 무렵**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가 이 장들을 연대순으로 배열하는 대신 역순대구를 이룰 수 있도록 주제별로 배열한 것이 분명하다.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장들은 의도적으로 구조화되어 있어서 전후 상응하는 부분들의 주제들이 같거나 비슷하다.

(맥다니엘[Chip McDaniel] 박사)<sup>13</sup>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들이 연대순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것들이 연대순으로 배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짧은 답이다. ... 우리는 창세기 37 장과 38 장에서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38 장은 다말에 대한 유다의 죄를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창세기 37 장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다. 그것들은 순서가 맞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물론, 비평가들은 어설픈 편집자가 이것을 합쳐 놓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이 도대체 왜 애굽으로 가야만 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작가의 숨씨가 아닌가? 그것은 형제들이 가족의 유대감과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의식을 잃어버렸으므로, 다른 나라들과 어울릴 수 없는 곳에 격리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 이와 마찬가지로 사사기의 마지막에도 성욕, 역겨운 성욕, 변태에 관한 에피소드가 있고, 또한 역겨운 우상 숭배에 관한 에피소드도 있다. 우리는 그것들도 역시 연대순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아마도 저자가 이러한 성적 부도덕과 우상 숭배에 대한 이 에피소드들이 사사 시대 전체를 특징짓는 것임을 보여주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사기 저자는 먼저 그

---

<sup>13</sup> **Dr. Chip McDaniel** is Professor of Old Testament and Hebrew at Southea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당시에 여러 사사들과 나라의 흥망성쇠를 다루고 나서, 이러한 변화가 지속된 것이 사사 시대 전체의 특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나는 우리가 사무엘하에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의 개요가 시사하듯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는 주제가 두 번 등장한다. 군사 문제에 대한 초점은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두 기록에 모두 나타난다. 다윗의 왕조 노래는 다윗의 왕조 유언과 연관되어 있다. 왜냐하면 다윗이 이 두 단락에서 그의 왕조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이 역순 대구적 배열에 나오는 주제의 반복은 이 장들에 대한 저자의 주요 관심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첫 번째와 여섯 번째 부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신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을 제시한다.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은 적들에 대한 승리의 복에 주의를 기울인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엄청난 은총이 그의 왕조까지 확장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주제들은 분열된 왕국이나 바벨론 유수의 도전에 직면한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에게 중요한 문제들이었다. 원래 독자들은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을 필요가 있었다. 그들은 적들에 대한 승리도 필요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시는 왕도 필요했다.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이러한 사건들은 원래 독자들에게 이러한 종류의 지속적인 은택이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그들의 것이 될 수 있음을 확신시켰다.

우리는 이 역순 대구 배열을 안쪽(세 번째와 네 번째 부분)에서 시작하여 바깥쪽(첫 번째와 여섯 번째 부분)으로 나오는 방식으로 살필 것이다. 그럼 먼저 가장 안쪽에 있고 다윗 자신의 말을 전하는 두 부분, 곧 삼하 22:1-51 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 노래와 삼하 23:1-7 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 유언을 살펴보자.

## 1. 왕조 노래(삼하 22:1-51 Dynastic Song)

한편으로, 삼하 22:1-51 에 나오는 다윗의 왕조 노래는 시편 18 편과 약간 다른 한 버전으로 다윗이 사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시편이다. 시편 18 편처럼 다윗의 왕조 노래는 1 절부터 4 절까지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그런 다음, 그것은 5-20 절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을 묘사한다. 21-29 절에는 다윗이 구원받은 이유가 나와 있다. 30-46 절은 여호와의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다시 돌아온다. 47-50 절에서는 여호와를 더 많이 찬양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이 아무리 영광스럽다고 할지라도, 삼하 22:51 은 저자가 이 노래를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후기(postscript)를 추가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하 22:51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심이여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이 후기는 하나님께서 미래에 이스라엘 왕을 통해 하실 일에 대한 한나의 확신에 찬 표현을 회상시킨다. 여러분은 삼상 2:10 에서 한나가 다음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기억할 것이다.

(삼상 2:10 개역개정)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한나의 찬양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혹은 구출)”을 주신다고 노래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한결같은 인애를 보이신다.” 그러나 다윗의 노래는 그 복받고 기름 부음 받은 왕을 거명함으로써 한나의 찬양을 뛰어넘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었고,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기도 했다. 그리고 사무엘

하 7 장에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것처럼, 이 소망은 “영원히” 다윗 왕조로 확장된다.

(풀러[Russell T. Fuller] 박사)<sup>14</sup> 하나님은 다윗의 계보를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선택하셨고, 물론 분열 후 남왕국 유다의 후기 역사에서도 그렇게 선택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이 처음부터 이미 정해졌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를 왕조를 세울 지파로 선택하셨다. ... 통치자들은 유다에서 나올 예정이었다. ... 성경이 다윗에 대해 말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이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도 다윗의 마음이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모든 면에서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다. ...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다윗 이후의 모든 왕은 기본적으로 다윗과 비교되며 “그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를 온전히 좇지는 않았다.”처럼 묘사되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좋은 본보기이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여호와에 대한 다윗의 마음 때문이다. 그는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했고, 그 때문에 그의 집은 영원히 선택되었다.

## 2. 왕조 유언(삼하 23:1-7 Dynastic Last Words)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왕조 유언(삼하 23:1-7)에서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윗의 말이 신적 권위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삼하 23:1 은 히브리어 단어 [느움](נֶאֱמַר)을 사용하여 이 단락이

---

<sup>14</sup> Dr. Russell T. Fuller is Professor of Old Testament Interpretation a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다윗의 “신탁”이라고 두 번 말한다.<sup>15</sup> 성경 저자들은 구약 예언의 신적 기원을 나타내기 위해 이 용어를 여러 번 사용했다. 우리는 삼하 23:2 도 역시 다윗의 유언에 대한 신적 기원을 강조하는 것을 본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하 23:2 개역개정) 여호와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저자는 다윗의 유언의 신빙성에 대한 어떤 의구심도 불식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영의 영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 유언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삼하 23:3-4 를 통해 다윗은 “공의로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 그의 백성에게 엄청난 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선포했다. 삼하 23:5 에서 다윗은 이 의로운 왕정의 일반적인 원리를 자기 자신과 왕조에 적용했다. 다윗은 그의 집이 하나님 보시기에 특별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하 7 장에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유언을 통해 그의 왕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공의롭게 통치할 때 이스라엘에 엄청난 복을 가져올 것임을 암시했다. 마지막으로, 삼하 23:6-7 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와 맺으신 언약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그의 집에 대한 소망을 잃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하 23:6-7 개역개정) 6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7 그것들을

---

<sup>15</sup> 역자 주: 개역개정은 이 히브리어 명사를 동사인 것처럼 번역했다. 개역개정과 ESV 를 비교해 보라.

개역개정: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함**이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 하는 자가 **말하노라**

ESV: Now these are the last words of David: The **oracle** of David, the son of Jesse, the **oracle** of the man who was raised on high, the anointed of the God of Jacob, the sweet psalmist of Israel: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여기서 사무엘서 저자는 자신이 원래 독자들에게 거듭 촉구했던 것을 되풀이했다.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들의 소망을 다윗의 집에 두어야 했다. 하나님은 영원한 언약을 통해 다윗의 집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조로 정하셨다. 이스라엘에서 이 왕가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었다.

다윗 왕조의 중심성에 대한 이러한 초점을 염두에 두고, 다윗의 집의 지속적인 은택의 두 번째와 다섯 번째 부분을 살펴보자. 두 번째 부분(삼하 21:15-22)과 다섯 번째 부분(삼하 23:8-38)은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의 이야기를 전한다. 이 두 부분은 다윗 왕조의 의로운 통치가 이스라엘에 제공한 큰 은택 중 하나인 하나님의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강조한다.

### 3. 승리한 용사들(삼하 21:15-22 Victorious Warriors)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첫 번째 기록(삼하 21:15-22)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4 번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도록 복을 주셨는지 빠르게 요약한다. 이 짧은 이야기들은 각각 다윗의 용사들이 다윗의 통치를 지지하면서 "거인들", 곧 위대한 블레셋 용사를 죽인 것을 지적한다. 삼하 21:15-17은 이 모든 이야기들에 대한 중요한 관점을 제공한다. 여기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읽는다.

(삼하 21:15-17) 15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 16 이스비브논이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이니 그 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다윗 자신이 “지쳐 있을” 때에도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지 않았다. 대신, 다윗의 신실한 용사들이 계속해서 다윗의 통치를 지탱하며 확장했다.

사무엘서 저자가 이 시점에서 그의 책에 이러한 전투 보고들을 포함시킨 이유를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윗이 통치 후기에 쇠약해진 것처럼, 다윗의 집은 저자 시대에 쇠약해졌다. 그러나 다윗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큰 승리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다. 모든 세대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의 용사들이 다윗 왕국의 대의를 위해 헌신한다면, 그들도 역시 큰 적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

#### 4. 승리한 용사들(삼하 23:8-38 Victorious Warriors)

승리한 다윗의 용사들에 대한 두 번째 기록(삼하 23:8-38)은 비슷한 주제를 반영한다. 이 단락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 중 36 여 명의 이름을 밝히고 있다. 먼저, 그는 “세 용사”의 이름을 밝히고, 각 용사의 영웅적인 행위를 묘사했다(삼하 23:8-12). 그리고 나서 저자는 우리에게 다윗을 위해 함께 싸웠던 “삼십 두목”을 알려준다(23:13-38).<sup>16</sup> 이 용사들은 위대한 전공을 세운 사람들이었다. 예를 들어, 삼하 23:8 의 요셉 밧세벳(= 아디노)은 “창을 휘둘러 단번에 8 백 명을 쳐죽였다.” 삼하 23:10 은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 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고 전한다. 삼하 23:11-12 에 따르면, 이스라엘 자손은 도망쳤지만, 삼마는 발 가운데 서서 막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며 그 발을 지켰다. 삼하 23:18 에서 아비새는 “그의 창을 들어 삼백 명을

---

<sup>16</sup> 역자 주: Vannoy, *1-2 Samuel*, 425, n. 3: The designation “the Thirty” is probably best understood as the name of a recognized military contingent whose membership varied from the time to time depending on deaths and new additions, rather than as a reference to thirty specific individuals. This is consistent with the statement in 23:39b that there were “thirty-seven” warriors who were members of “the Thirty.”

죽였다.” 삼하 23:20-21 에서 브나야는 모압의 병사 두 명을 쳐죽였고, 사자를 죽였고, 장대한 애굽 사람을 무찔렀다. 이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다윗 왕국의 후기에 권세 있는 자리를 차지하였다.

저자는 원래의 독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다윗의 위대한 용사들에 대한 두 개의 기록을 디자인했다. 분열 왕국 혹은 바벨론 유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의 적들은 종종 천하무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다윗 시대의 이 위대한 용사들처럼, 이스라엘은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소망을 포기해서는 안되었다. 오히려 그들은 다윗의 집을 위해 다시 강력한 용사들을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통해 베푸신 지속적인 은택에 초점을 맞춘 저자가 바깥 틀로 배열한 첫 번째 부분(삼하 21:1-14)과 여섯 번째 부분(삼하 24:1-25)을 살펴볼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이 두 이야기를 고찰해보자.

### 5.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삼하 21:1-14 Relief from God's Curse)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첫 번째 예(삼하 21:1-14)는 다윗의 통치 중에 발생한 기근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다. 삼하 21:1 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설명함으로써 무대를 설정한다. 기근이 계속되자 다윗은 그 이유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해 기도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기브온 사람들과 맺었던 조약을 무시하고 사울과 그의 집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기근을 가져왔다고 알려주셨다. 이 사건에 대한 성경 기록은 없지만, 그것은 사울이 왕권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이었다. 수 9:15-18 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하겠다고 맹세하였었다. 그러나 사울은 이 조약을 어겼고, 그의 위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기근의 저주를 보내셨다.

삼하 21:2-6 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합당한 대로 다윗이 기브온 사람에게 속죄하는 방법을 어떻게 모색하였는지를 기술한다. 처음에 기브온

사람들은 겸손하게 어떤 속죄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러나 다윗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이 이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사울의 자손 일곱 명을 처형하도록 자신들에게 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윗은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삼하 21:7-9 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먼저 다윗이 요나단에게 맹세한 것 때문에 므비보셋을 넘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 다음, 저자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준 사울의 일곱 자손의 이름을 기록하고 기브온 자손이 어떻게 그들을 처형했는지를 기술하였다.

이 이야기는 삼하 21:10-14 에서 기근이 끝나면서 마무리된다. 다윗은 사울의 집에 자비를 베풀어 줌으로써 계속해서 자신의 영예로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윗은 목매어 달려 죽은 사울 자손의 시신들을 길르앗 야베스에서 가져온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어주었다. 다윗의 공의롭고 영예로운 행동의 결과로, 삼하 21:14 의 후반절은 "그 후에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고 말한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기도들이 응답되었고 기근은 끝나게 되었다.

만약 사무엘서 저자가 이 이야기를 다른 맥락에 놓았더라면, 그것은 그의 독자들에게 수많은 시사점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윗 통치의 지속적인 은택이란 맥락에서, 그것은 사울과 그의 집에 의해 야기된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구원을 가져온 다윗의 역할을 강조한다. 이 이야기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사울의 가족이 이스라엘에 가져온 하나님의 저주에서 벗어난 것이 다윗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왔음을 시인하였다. 이 사건이 원래 독자들에게 시사하는 바는 분명했다. 그들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다윗 왕조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하나님의 저주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다.

## 6.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삼하 24:1-25 Relief from God's Curse)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삼하 21:1-14)과 병행되는 예는 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삼하 24:1-25)에 나온다. 이것은 다윗의 인구 조사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후속 저주에 대한 잘 알려진 이야기다. 이 이야기는 다윗이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을 가져왔는지를 전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앞서 살펴본 이야기와 비슷하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면에서 다르다. 이번에는 다윗 자신의 죄 때문에, 심판이 이스라엘에 임했다.

이 마지막 내러티브는 다윗의 인구조사에 대한 설명(삼하 24:1-9)으로 시작된다. 삼하 24:1 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그의 전사들을 세도록 하셨다. 그러나 병행 본문인 대상 21:1 이 설명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탄이란 도구를 통해 이렇게 하셨다. 우리가 이 인구 조사가 왜 그렇게 최악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십중팔구 다윗은 그의 군대의 힘을 평가하기 위해 이 인구 조사를 명령했을 것이다. 이 행동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냈다. 어쨌든 다윗의 장군 요압은 반대하였지만, 다윗이 고집하였으므로 요압은 이에 순응하였다.

그 다음으로 내러티브는 다윗의 회개와 하나님의 심판(삼하 24:10-17)을 전한다. 인구 조사를 마친 후,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했다. 선지자 갓을 통해 여호와께서는 다윗에게 징계에 대한 선택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의지하며, 다윗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요청했다. 이에 이스라엘에 심한 전염병 심판이 임했고, 칠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여호와의 천사가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자, 다윗은 더욱 더 자신을 낮추었다. 삼하 24:17 에서 다윗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삼하 24:17 개역개정)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다윗은 자기의 죄를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께 백성이 아니라 다윗과 그의 가족에게 심판을 내려 주시기를 간청하였다.

선지자 갓은 다윗에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함으로써 다윗의 진실한 회개에 반응하였다. 이곳은 수십 년 후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동일한 타작 마당이었다. 다윗은 그 땅을 매입하여 자신과 나라를 위해 신실하게 제사를 드렸다. 이 이야기는 삼하 24:25 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끝난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사무엘서 저자는 사무엘하 21 장의 이전 이야기와 병행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두 이야기는 모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자기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전함으로써 끝난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다윗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저주를 멈추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무엘서 저자가 왜 이 이야기로 책을 끝냈는지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의 원래 독자들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심판이 엄중한 시기에 살았다. 그러나 여기서 저자는 어떻게 그의 원래 독자들이 하나님의 저주들에서 그리고 심지어 다윗과 그의 가족으로 인해 내려진 저주들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밝혔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매우 총애하셨다. 그래서 그들은 용서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의 구원이 다윗의 집을 통해서만 온다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해야 했다.

다윗 통치의 지속적인 은택의 구조와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제 우리는 이 장들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탐구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들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 B. 기독교인의 적용(CHRISTIAN APPLICATION)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사무엘서 저자는 다윗 통치의 지속적인 복들로 그의 책을 끝냈다. 이러한 복들은 이스라엘이 다윗과 그의 왕실 후손들의 실패로 인해 겪는 시련 속에서도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다. 기독교인으로서 우리도 격려가 필요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사무엘서의 원래 독자들과 달리, 우리는 어느 면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못한 적이 없으신 메시아 예수님을 섬긴다. 물론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는 아직 완전히 오지 않았다. 우리는 여전히 죄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사무엘서의 마지막 장들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제공한다.

이번 강의에서 이전에 논의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무엘서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을 다룰 것이다.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들을 논의할 것이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논의할 것이다. 저자는 책의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언약들을 어떻게 강조했는가?

### 1. 하나님의 언약들(God's Covenants)

다윗의 지속적인 은택을 가리키는 각 에피소드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약들의 모든 역학적 원리에 주의를 기울인다. 6 개의 모든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은택을 보여주신 방식을 가리킨다. 각 에피소드에서 저자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바치는 충성에 대한 하나님의 표준을 제시했다. 각 에피소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불순종에 대한 저주와 순종에 대한 복을 내리셨는지에 대해 다룬다.

늘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적용할 때 신약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의 마음은 먼저 그리스도께로 향해야 한다. 이 장들에서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은택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은택으로 향하도록 한다. 모든 충성 행위는 그리스도의 완벽한 충성이 얼마나

우월한지를 상기시켜준다. 이 장들이 다윗과 이스라엘에 임한 저주들과 복들을 지적할 때, 그것들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영원한 저주와 복을 인정하라고 촉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윗 통치의 지속적인 은택을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한다. 사울과 다윗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땅에 저주를 내리셨는지를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에 일시적인 징계를 주시는 것을 상기한다. 다윗처럼 우리도 돌이켜 겸손한 회개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응답해야 한다.

우리가 다윗의 용사들의 승리에 대해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직면하고 있는 악과의 투쟁에서 자신감을 얻게 된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자기와 자기 집에 대한 하나님의 지속적인 은총을 시인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떤 남자, 여자, 아이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팔리[Andrew Parlee] 박사)<sup>17</sup> 사울이 그의 가장 좋은 때에는 블레셋 사람을 물리쳤고, 이것은 이스라엘이 왕에게 소망을 갖도록 격려했다. 물론 우리는 사울이 매우 불충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로부터 나라를 빼앗으신 것을 알고 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너희 소망과 신뢰를 사울 왕으로부터 다윗 왕과 그의 계보로 옮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다. ... 우리는 또한 다윗이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동안 그의 많은 위대한 업적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것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모세와 맺은

---

<sup>17</sup> **Dr. Andrew Parlee** serves as a missionary with Greater Europe Mission and as a member of the Faculty Board of Approval for Third Millennium Ministries.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한 사람에게 소망과 신뢰를 두라는 것, 바로 이것이 핵심이다. 물론 우리는 다윗이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언약을 스스로 어겼다는 것을 알고 있다. 따라서 독자들은 "우리가 다윗이나 그 자손에게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랄 수 있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다. ...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과 은혜롭게 맺으신 영원한 언약을 매우 강조한다. 사무엘서는 "언젠가는 모세와 맺은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실 신실하고 의로운 통치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소망을 장차 오실 다윗의 그 자손에게 두라!"고 말한다. 지금 우리는 그 다윗의 자손이 그리스도로 오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시며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이 오늘날 우리가 우리의 소망과 신뢰를 두는 분이시다.

다윗 생애의 이 부분에 대한 기독교인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들의 역학적 원리를 염두에 두는 것 외에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전개되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일도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한다.

## 2. 하나님의 나라(God's Kingdom)

사무엘하 21-24 장에서 저자는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덕분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다윗의 완벽하게 의로운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행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패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 모든 소망을 이루신다. 그 세 단계는 그분의 초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개시, 교회 전체 역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지속,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다.

첫째로, 사무엘하의 이 마지막 장들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나라의 개시를 통해 이루신 모든 것으로 향하도록 한다.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이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다윗의 용사들이 적들을 물리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 결정적으로 악을 물리치셨다. 다윗이 하나님의 저주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에서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

둘째로, 이 장들은 또한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나라가 지속되는 동안 다윗이 성취한 모든 것을 어떻게 대체하셨는지 고찰하도록 요구한다. 다윗과 그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리스도께서 확장하시는 나라에 의해 성취된다. 다윗의 용사들의 업적은 예수님께서 우리 시대 전반에 걸쳐 하나님의 적들을 상대로 끊임없이 승리하심으로써 성취된다. 이스라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가져온 다윗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실 때 매일 더 큰 방식으로 성취된다.

셋째로, 다윗의 집에 베푸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복들이 원래 독자들을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향하도록 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 시대가 완성될 때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일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그리스도께서는 재림하실 때 다윗의 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영육 간의 모든 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분을 믿어 온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복을 쏟아 부으실 것이다. 다윗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저주에서 구원을 가져왔듯이,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에서 모든 피조물을 영원히 구원하실 것이다.

## V. 결론(CONCLUSION)

다윗 왕에 대한 이 강의에서 우리는 헤브론과 예루살렘에서 복을 누리던 초기부터 밋세바와 관련된 그의 죄로 인해 시초의 문제들과 확장된

문제들로 저주를 받던 후기에 이르기까지 다윗 왕정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러한 저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서 저자가 다윗의 왕조 노래와 유언, 승리한 용사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설명으로 책을 마감하면서 다윗의 집의 의로운 통치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지속적인 은택을 보여준 것을 살펴보았다.

사무엘서에 나오는 다윗의 통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 왕국의 실패에 직면했을 때, 그들에게 결정적인 지침을 주었다. 비록 다윗과 그 후손들이 실패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져왔지만, 신실한 사람들은 여전히 다윗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어야 했다. 오늘날 여러분과 나 또한 충성스러운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조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의 통치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을 상기시켜준다. 다윗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위대하신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된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징계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그러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까지 그의 신실한 백성을 지탱하실 것이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상속받을 것이다.